

신세계 이마트, 하도급 1만명 정규직 전환

광주 4개점·전남 3개점 400여명 고용안정 학자금 등 복지혜택...소득 27% 향상 효과

신세계 이마트가 '불법 파견' 논란이 일었던 하도급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인력구조를 변경, 향후 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이마트는 4일 광주·전남을 포함 전국 146개 매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상품 진열을 전담해 온 하도급 직원 1만여명을 다음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 4개점(동광주·광산·상무·봉선)과 전남 3개점(순천·여수·목포)에서 일하는 400여명이 신분 보장과 정규직과 같은 복지혜택의 수혜를 받게 됐다.

직접 채용 인력은 정년이 보장되고 기준에 받지 못했던 상여금과 성과급도 정규직과 똑같이 받아 소득수준이 27% 가량 높아진다. 또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 정규직에 주어지는 복지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제까지는 평균 근무기간 25개월에 불과했으나 앞으로는 기간이 늘어나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이마트 측은 전했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은 20대 남성이 37%, 40~50대 여성이 47%로 주를 이루, 취업 소외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마트 상무직 가공식품코너에서 일하는 김모(28)씨는 "출근길에 정규직 전환 소식을 들었다"며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의료비나

학자금지원도 된다니 기쁘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이번 결정으로 연간 6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마트 측은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됨에 따라 도급인력들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며 "하도급 인력 사용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소모적 논쟁을 버리고 상생의 길을 택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마트의 이번 하도급 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계기로 유통업계에서는 이 와 유사한 결정이 다른 업체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007년에는 신세계가 캐셔 등 비정규직 직원 5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홈플러스는 4000여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업체별로 비정규직 대책은 연쇄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통산업 전체에는 1만5000여명이 넘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업들이 이들의 정규직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2월 소비자 물가 소폭 상승

전달보다 0.3% ↑

광주·전남 지역의 2월 소비자물가가 전달보다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2013년 2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2(2010년=100)로 전달보다 0.3%, 전년 같은 달보다 1.1% 각각 상승했다.

생활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06.8(전도시평균=107.3)로 전달보다 0.4%, 전년 같은달보다 0.3% 각각 올랐다.

생활물가 품목 가운데 오이(19.4%), 당근(19.2%), 양파(18.8%), 풋

고추(17.4%), 토마토(16.1%), 치약(15.8%), 공동주택관리비(5.8%) 등이 올랐고, 딸기(-26.2%), 무(-24.8%), 꿀(-11.6%), 시금치(-10.1%), 닭고기(-7.0%), 햄(-6.7%), 삼파(-3.6%), 돼지고기(-2.1%) 등이 내렸다.

신선식품지수는 122.4로 전달보다 0.8% 하락하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 5.9% 상승했다.

품목별로 신선어개류는 전달보다 1.7% 하락, 전년 같은달보다 3.6% 상승, 신선채소류는 5.8%와 25.4% 각각 상승, 신선과실은 4.4%와 3.3% 각각 하락 등을 기록했다.

전남지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로 전달보다 0.3%, 전년 같은 달보다 1.1%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 bigkim@



'문전성시' 아웃도어 바자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 시즌 이벤트 홀에서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기념 바자가 열려 시민들이 북새통을 이뤘다. 유명 아웃도어를 최대 60%에서 3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번 바자는 오는 7일까지 열린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고객은 봉?

신규가입 보험료 5~10% 또 인상

올해부터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가 5~10% 또 오르게 됐다.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한 것이 표면 이유다.

보험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손쉽게 해결하려는 관행도 보험료 인상에 한몫했다. 고객을 '봉'으로 삼는다는 비판을 받는 보험료 인상은 '절판 마케팅'에 악용될 소지마저 우려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다음 달부터 '표준이율'이 0.25%포인트 내린 3.50%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표준이율이 0.25%포인트 떨어지면 5%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하향 조정으로 보험료 인상 폭이 2년째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셈이다.

특히 장기상품(만기가 긴 상품)이 많은 종신보험, 질병보험 등을 중심으로 보험료가 많게는 10%까지 오를 수 있다.

실제로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대형 보험사들은 표준이율 조정에 맞춰 보험료 인상을 준비 중이다. 만기가 짧은 상품도 보험료가 달 오를 게 연성이 크지만, 3년 만기인 실손의료보험은 손해를 상승(보험금 지급 비율)이 겹쳐 상당폭 인상이 점쳐진다.

/연합뉴스

광주농협, 소외이웃 치료비 1300만원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식)와 사랑의 천사(1004)운동(위원장 구희호)은 4일 광주지역본부에서 '2013년 1차 사랑의 1004운동' 운영 위원회를 갖고 수술비와 치료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8명에게 13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사랑의 1004운동'은 광주관내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임직원이 연

초 인사철에 영전 축하 꽃 구매대금 모금과 시상금, 급여기부, 폐지 판매 대금 등으로 1004만원이 모이면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는 사랑나눔 운동이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현재까지 어려운 이웃 121명에게 1억3000만원을 수술비와 치료비로 지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녹색생활 하면 포인트 드려요"

光銀 'K-그린카드'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에너지 절약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K-그린카드(사진)'를 4일 출시했다.

'K-그린카드' 이용 고객에게는 가스, 전기, 수도 사용량 절감에 따라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친환경 제품 구매 시 할인,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등 지자체 운영 시설물 할인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함께 대중교통, 패밀리레스토랑, 놀이공원, 영화관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각 영업점 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광주은행은 'K-그린카드' 출시 기념으로 4월 30일까지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최신형 자전거, 기프트카드, 모바일 커피교환권 등의 경품 행사도 마련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고졸 계약직 정규직 전환

NH농협은행 전남본부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본부장 고대순)는 4일자로 전남·광주 지역영업점에서 근무중인 특성화고 졸업생(입·출급 창구직원) 13명 전환을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규직 전환 인력은 전국적으로 132명이며 이들은 은행내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다양한 경력을 쌓을 수 있어 금융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

전남영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농협은행 창구인력이 완전 정규직화 돼 영업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대형마트 골목상권 입점예고 의무화

지정부, 서민·중기 지원책 마련...규제 위반시 제재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사전입점 예고제가 도입되고 영업규제 위반시 제재가 강화된다.

또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주유소에 석유공사 보유 물량을 낮은 가격에 공급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서민·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골목상권 확대를 위해 대형마트 사전입점 예고제를 도입하고 영업규제 위반시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과 규제

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사전입점 예고제는 대규모 점포 개설 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휘발유 판매 가격이 계속 올라 갈 경우 전반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석유공사가 보유한 물량을 낮은 가격에 알뜰주유소에 풀기로 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삼성토탈과 페트로차이나로부터 공급받은 물량이며 비상시에 대비해 비축해놓은 물량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이

행하기 위해 지정부 주요사업비 예산 12조원 중 63%에 해당하는 7조6천억원을 상향기에 집행키로 했다.

주요 수출 시장인 EU와 미국의 경기 불확실성, 원화 강세, 고유가 등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5일부터 '기업에로 점점 TF'를 운영한다.

정부는 유관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무역, 금융, 규제, 경영컨설팅 등 분야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심층적으로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여름철 전력 수요관리 대책 및 공급력 확충 계획을 마련해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Complete View
새롭게 태어난 엘리시아만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축복 받은 집"

씨푸드 뷔페 — 엘리시아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구분	평일		주말, 공휴일	
	런치	디너	런치	디너
성인	25,000	30,000	33,000	35,000
초등학생	13,000	16,000	19,000	19,000
유아 (5세~미취학)	8,000	10,000	12,000	12,000

위 금액은 VAT 포함가격입니다.
홈페이지(www.elysia.co.kr)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항상 10%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 할인 이벤트 진행중 (홈페이지 참조)

바다의 향기를 가득 담은 푸른빛 바다향

☎ 062) 511-2303

Special Service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결혼 피로연 / 각종 세미나 / 워크샵
돌잔치 / 회갑 / 칠순연

이용요금 ₩27,000~₩33,000

행복하고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엘리시아 예약실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385-3000

전국꽃배달서비스 365일 24시간
www.flowerelysia.co.kr

매경사회화 / 축하화분 / 꽃바구니 / 꽃다발 인터넷주문, 카드결제, 계좌이체 가능

☎ 062)513-4000

엘리시아컨벤션 안내 (별관)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과 차별화된 음식으로 초대하신 분들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60석 80석 100석
120" 대형 빔프로젝트 및 음향시설 완비

엘리시아꽃배달 OPEN기념 이벤트!

꽃, 화분 등 5회 이상 주문시 [5만원 이상] 엘리시아 상품권 5만원권 증정

꽃 + 엘리시아 식자권 묶음 상품 30% 할인판매 "엘리시아 꽃배달" 홈페이지에서 구입가능

www.elysia.co.kr

A코스 15,000원 C코스 30,000원
B코스 20,000원 스페셜 40,000원
(1인 기준 2인 이상)

정식 특별 할인

동태탕 6,000원	최대밥 6,000원	쌈밥 7,000원
특산매운탕 10,000원	생선초밥 10,000원	굴비정식 15,000원
런치정식 15,000원		

위 치: 구, 용봉동 엘리시아 사브사브